

# 지상진료실

## 臨床家を 위한 小兒의 外傷治療

(미성숙 영구치를 中心으로)

〈外誌에서〉

齒科領域에 三大疾患은 齒牙우식증, 不正咬合, 齒周疾患이란 用語가 時代的변천과 그 나라의 환경여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얼마전 Copenhagen Royal dental school에서 來韓한 Erik Kisling교수의 특강내용을 집약하면 그곳 Denmark는 人口 500만中 치과 의사의 수는 4,500명으로 치과 의사 1人當 人口 1,1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년간의 계속적인 예방사업의 결과로 치아우식증은 완전히 퇴치되었고 치수치료나 치수발거는 거의 볼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치과 의사의 일손이 남아져 다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現實이며 이에 반하여 小兒의 否定咬合과 齒牙外傷의 빈도가 심한 증가의 一路에 있다고 한다.

이는 分明히 그 나라의 社會구조와 환경의 여건, 기계 문명 발달로 인한 二次的 副

作用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近來에 있어 齒牙의 外傷이 점차로 높아가고 있음을 눈앞으로 直感할 수 있다.

다음은 young permanent dentition을 中心으로 外傷齒牙의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한 분류법과 그 치료법이다.

### INJURIES TO THE HARD DENTAL TISSUES AND THE PULP

Crown infraction(A)

Uncomplicated crown fracture (B.C)

Complicated crown fracture (D)

Uncomplicated crown-root fracture(E)

Complicated crown-root fracture(F)

Root fracture(G)

